

“얼싸 안았다”... 남북화해 ‘물꼬’



◇ 남북화해와 남북불교교류 활성화를 위해 채택된 부처님오신날 공동발원문과 합의서 내용을 남과 북이 검토하고 있다.



◇ 법타(오른쪽 끝부터)·도안스님·심상련 서기장·능관스님 이 합의서에 서명한 후 손을 맞잡았다.

남북 불교대표단 북경회담 스케치

3월13일 오후 3시(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웨라톤호텔 회의실. 남북 불교실무자 회담장. 법타 도안 능관스님과 지현정사(미주평불협 상임부회장)를 비롯한 한국 불교대표단이 심상련 조불련 서기장, 류인수 책임지도원, 임성훈 조불련 평양시위원회 위원장 일행을 만났다. 북측 인사들과 낯설지 않은 법타스님은 그들과 얼싸 안으며 반가움을 전하기도 했다. 13, 14일 이틀간 진행된 회담에서의 남북 불교실무자들의 표정을 전한다.

남북북경회담 합의서

1. 남북, 북남의 화해와 통일을 기원하는 제2차 남북(북남) 불교 대표자 조국통일 기원법회를 1998년 6월1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관음사에서 갖는다.
2. 1998년 5월3일 오전 10시 부처님오신날(성탄절) 법요식에서 조국통일을 기원하는 라종사와 함께 합의한 공동 발원문을 봉독한다.
3. 북조선의 경제적 어려움을 공감하고 한국 불교종단협의회 대표단의 방북시에 조선 불교도연맹에 식량 등을 지원하도록 추천한다.
4. 위의 3개항을 실현하기 위하여 실무접촉을 계속 갖기로 한다.

국수공장 준공식 한국불교단 초청 조불련 “금강국수공장 지속지원” 태경스님·류인수씨 의형제 맺어

○...회담장에 들어선 조불련측이 기자들의 사진촬영과 취재에 난색을 보이자 분위기가 경색되는 듯 했으나 기자들이 실무회의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며 한국측이 배려하면서 본격적인 회담이 시작됐다. 회담장의 분위기는 남북 대표단이 삼귀의와 반야심경 봉독으로 불자로서 예를 갖추는 사이 이내 화기가 감돌았다.

월5일경 금강국수공장 준공식에 한국 불교대표단을 초청하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조불련은 북한에 한우를 보내주면 어떻게 될까는 기자의 제안에 웃보다 더욱 절실하게 먹고 사는 것이라며 식량 등의 지원을 요구했다.

○...조불련측 참석자들의 표정과 복장은 현 북한 경제상황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 심상련 서기장은 졸업배를 피며 이번 회담의 성과에 대한 초조한 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이 입고 온 양복과 와이셔츠는 계절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오래 입었는지 보푸라기가 피고, 이제는 도저히 바지춤이 잡힐 것 같았다.

○...한인식당에 마주앉은 양측 불교대표단은 서로 남과 북 할 것없이 사이사이가 앉아 안부를 묻고, 나라가 겪고 있는 위기 극복을 위해 서로 돕자고 손을 맞잡았다. 또 대구 불교방송 기획위원 태경스님이 분위기를 풀기 위해 노래를 선창하자 조불련 류인수 책임지도원이 뒤를 이어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다시 만납시다’라는 노래로 화답했다. 이날 태경스님과 류인수씨는 의형제를 맺고, 회담일정 내내 함께 다니며 남북 불교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중국 베이징=도필선 기자

“눈물이 나서 혼났습니다.” 최근 북경에서 북한불교 대표들을 만나고 온 몇몇 인사들의 말이다. 말이란 꼭 입으로만 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 표정에서도 웃치림에서도 상대방을 읽을 수 있다. 북측대표들의 그 ‘무언의 말’이 어땠을까. 우리측 인사들은 연민을 느끼고 눈물까지 흘렸을까. 동족이기 때문에 더 가슴 저렸을지도 모른다.

남북불자들이 LA서 합동법회를 열고 부처님오신날 공동 발원문을 봉독하고, 북쪽에 식량등을 지원하자고 합의했는데, 우리 정부도 남북 화해를 위한 반가운 소식을 발표했다.

고령 이산가족의 방북절차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하고 다음달부터 1백가구가 제3국에서 가족교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해당되는 이산가족 1세대는 이 소식을 듣고 아마 잠잠을 설쳤을 것이다. 정부는 ‘대북지원 활성화 조치’도 내놓았다. 현재 종교계와 민간단체가 북한과 추진중인 병원, 국수공장, 식료품공장, 합영농장 건립추진등 ‘남북협력사업’ 방식의 대북지원을 승인할 것이라고 한다.

때맞춰 기독교단체에서는 5월5일 나진 선봉지역에 제약공장 기공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북한주민의 의료지원을 위해 ‘평화의 천사 운동’을 전개한다. 1천4명의 후원자들이 1백만원씩 10억4백만원의 모으는 캠페인이다. 같은 종교인으로서 이 소식을 접한 불자들의 심정은 어떨까.

동일부는 민간단체들의 대북식량지원협의 및 분배결과 확인을 목적으로 한 방북과 대한적십자의 지원물품 인도·인수 관란도 허용키로 했다.

남측의 이러한 남북화해 움직임에 북측도 응답하는듯 빠르면 올 가을부터 한국인에게 북한관광을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관광객보다는 실험민을 대상으로 입국을 허용하고 북한주민 접촉 제한을 위해 관광북구를 지정, 집중개발하고 있다고 한다.

반가운 소식이다. 여기서 남북은 공히 순수해야 한다. 겉으로는 민족애와 화해의 교류를 내세우면서 명예와 이익을 쫓기려 들면 안된다. 시작이 좋아야 ‘유형의 미’를 거둘 수 있다.

목어

화해의 시작

만공큰스님 탄신 127주기 다례행사

원력이 있는 곳에 가피가 있고 가피가 있는 곳에 원만성취가 있습니다. 덕승총림 수덕사는 호서제일의 책체불교 요람이며 근대불교의 선맥을 진작하시고 한국불교의 중흥을 이루신 경허·만공 대선사의 혜백(慧脈)을 이어 내려오는 선지종찰입니다. 금번 덕승총림 수덕사에서는 만공 큰스님의 탄신 127주년을 맞이하여 다례를 올리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하여 보살계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보살계를 받는 것은 어렵히 수행하는 방편문이며 윤회고(輪廻苦)를 벗어나는 지름길입니다. 수덕사 보살계 수계 대법회에 수회 동참하시어 다생겁래의 업장을 소멸하시고 현세의 고통을 넘어 이고득락의 열반도(涅槃道)를 이루는 계기가 되시기를 축원 올립니다.

다례

- 일 시 : 불기 2542년 4월 3일 (음력 3월 7일) 오전 10시
- 장 소 : 덕승총림 정혜사

덕승총림 수덕사 보살계 수계 대법회

- 일 시 : 불기 2542년 4월 3일 (음력 3월 7일) 오후 1시
- 장 소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20 덕승총림 수덕사
- 보살계동참금 : 3만원
- 접수처 : 수덕사 종무소 전화 : (0458)37-6565
팩스 : (0458)37-0072
· 수덕사 서울포교당 서천사 : (02)682-5055
· 수덕사 춘천포교당 정법사 : (0361)54-7194
· 예산, 홍성, 서산, 태안, 당진지역 제7교구 밀사

불기 2542년 3월 10일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 본사 덕승총림 수덕사 주지 김법장 합장

부처님오신날 남북 공동발원문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오늘 남과 북(북과 남)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정진하는 우리 불교도들은 사바세계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고자 부처님께서 몸을 나누신 지 2542년이 되는 뜻깊은 날(성탄절)을 맞이 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남과 북(북과 남), 해외에서 모든 사찰에서 동시에 법회를 개최하고, 하루라도 빨리 조국 통일이 성취되도록 사부대중 모두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거룩하신 부처님 전에 간절히 참회 발원하옵니다.

북덕과 지혜를 두루 갖추신 부처님, 우리 7천만 민족과 불교도들은 단군을 국조로 하는 하나의 나라, 하나의 민족이면서도 반세기가 넘는 긴긴 세월동안 민족 분열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아직도 남과 북(북과 남)의 침예한 대결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전쟁에 대한 위협이 가시지 않은 채 긴장과 불안한 정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남과 북(북과 남)의 모든 불교도들은 이러한 조국의 안타까운 현실이 극복되지 못한 채 또 한 해를 바래 부처님 오신날(성탄절)을 맞이해야 하는 참담한 심정을 형용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남과 북(북과 남)의 모든 불자들은 거룩하신 불보살전에 간절히 참회 발원하옵니다. 지금 우리 민족에게는 분단의 고통에 더해 남과 북(북과 남) 모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불교는 우리 민족에게 전래된 이래 민족과 국가가 고난에 처할 때마다 국난을 극복하는데 앞장서 왔으며,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전쟁에 반대하여 평화를 지키고, 민족을 수호하는데 그 빛나는 소명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러 우리 민족이 분열과 대결의 고통을 극복하지 못한 것은 부처님께서 일깨워 주신 한 민족 한 핏줄이라는 지중한 인연의 원리를 망각한 채 무명애 가리워 자비롭게 화합하는 불도의 길을 저버리

고 질시한 공업의 소산이며, 중도의 바른 길을 잃은 채 양극단의 사도를 걸어 온 탓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어리석음을 부처님 앞에 진실로 참회하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오늘 남과 북(북과 남), 그리고 해외의 모든 사찰들에서 부처님오신날(성탄절)을 봉축하는 모든 불교도들은 사바세계의 한 생을 중생구제에 바쳐 오신 부처님의 무량공덕을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면서 온 민족이 당하고 있는 분열의 고통과 대결의 역사가 실현된 통일조국, 지상정토를 삼천리 강산에 실현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용맹정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 남과 북(북과 남)의 불자들은 그동안 남과 북(북과 남) 공동으로 천명한 평화공존과 조국통일을 위한 원칙을 존중하고 그 이념 밑에 자주적으로 민족의 출로를 열어나가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또한 남과 북(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 체계를 존중하고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쌍방에 다같이 이로운 것은 편견 없이 받아들이고 단절하여 민족의 공존과 공영, 공리를 적극 도모하도록 양자서 정진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아직도 우리 나라는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전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자주적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려는 우리 민족에게 화해와 화합을 이루기 위한 지혜와 광명을 주십시오. 나아가 인류의 평화를 실현하여 불국정토를 이룩하는데 우리 불교도들이 앞장서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우리들의 시원을 깊이 헤아려 무량한 가피력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불기 2542년 부처님오신날(성탄절) 남과 북(북과 남) 해외 불교도 동시법회 참가 대중

북동포에 국수 보시합시다

현대불교신문사는 평불협이 황해북도 사리원시에 세운 금강국수공장을 후원하기 위한 ‘금강국수공장 후원회’와 공동으로 후원금 보시운동을 전개합니다. ‘금강국수공장’ 운영에 동참하시어 큰 북을 짓고 무너지지 않는 공덕탑을 쌓으십시오.

금강국수공장후원회 회원가입

- ◇ 후원회원: 매월 1천원 이상
- ◇ 일반회원: 매월 3천원 이상
- ◇ 운영회원: 매월 1만원 이상
- ◇ 일시불 후원 보시금도 환영.

은행계좌 및 지로번호

국민은행: 006-21-0808-274
농협: 053-01-237065
우체국: 010041-0302852
지로번호: 7602812

예금주: 금강국수
※ 거래 은행에 자동이체신청을 하면 편리합니다.

※ 동참하신 분은 팔공산 은해사에서 기도 축원해 드립니다
※ 수시로 후원금 모금현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의처: (02)735-5559

현대불교신문사·금강국수공장후원회